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

국제교류담당관	조혜정	2133-5260
아시아팀장	김미선	2133-5277
담 당 자	이우림	2133-5279

사진없음     사진있음     매수 : 9매

**서울시와 28년 친선도시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,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**

- 오세훈 시장, 15일(월) 울란바타르시 D. 소미야바자르 시장과 환담 후 명예시민 수여식
-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첫 해외도시 시장 명예시민 위촉...우호협력 강화 기대
- 울란바타르시, 한강의 수변정비정책, 첨단 교통관제시스템,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모색 기대

서울과 28년 우정을 쌓아온 친선도시이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의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(Dolgorsuren Sumiyabazar) 시장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. 이번 명예시민 위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도시 시장으로서는 처음이다.

-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핵심 경제 산업 도시로 몽골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활하며 몽골 GDP의 65%를 차지한다.
- 지난 10년간 경제력 294%, 인구 41%, 등록 기업 수 183% 가 증가한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.

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을 접견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- 서울시는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을 대상 또는 서울에서 연속 3년 또는

누적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을 수여하고 있다.

-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무위원 겸 광산중공업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20년부터 울란바타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과 울란바타르시 간 교통 분야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도시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해 왔다.
  -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시장은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 출신으로 다방면에서 몽골 국민들에게서 사랑받고 있다.
  
-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는 1995년 친선도시 체결 후 지난 28년간 문화, 인적교류, 주요 정책 공유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‘서울의 거리’가 조성되어 있고, 울란바타르의 교통시스템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교통정책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.
  - (문화교류)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 조성(1996), 몽골 서울숲 조성(2009), 울란바타르시 공연단 서울시 세계도시문화축제 파견 다수
  - (인적교류) 울란바타르시 청소년 직업훈련 제공(2004), 몽골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몽골 주말학교 지원(2016), 서울 교통공사-울란바타르 철도공사 직원 역량 강화 사업 진행(2019)
  - (교통) 서울 정책수출사업단,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컨설팅(2017), 서울시-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(2021)
  
-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앞서, 오 시장과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은 양 도시 간의 교류 현황을 공유했다. 특히,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은 서울시의 첨단교통관제 시스템과

탈탄소 정책 등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, 울란바타르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등 향후 도시 간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.

- 몽골 울란바타르 시는 현재 도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, 공용주차장 부지의 협소함,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.
- 특히, 울란바타르의 교통 인프라 부족과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△경전철 건설 △외곽순환도로 구축, △톨강 인근 개발을 검토 중이며, 이를 위해 한강의 수변공간 정비현황 및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.

□ 시는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몽골 내 서울 홍보대사로서 친서울 분위기를 확산하고, 나아가 28년간 이어온 서울시-울란바타르시 간 교류 활성화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은 “한국하고 몽골인들은 몽골반점을 갖고 태어나는 등 많은 유사한 점이 있다”며, “(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)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양국 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등 새로운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며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이날 명예시민 위촉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어느 날 만나서 천 일 동안 친구로 지낸다는 몽골 속담처럼, 28년의 오랜 우정을 나눈 양 도시가 앞으로도 진정한 친구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미야바자르 울란바타르 시장님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”며, “명예시민으로서 서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서울의 매력에 대해서 널리 흥

보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울란바타르가 겪는 교통, 개발 등의 정책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몽골 울란바타르시장 서울시 명예시민위촉식 사진
2. 몽골 울란바타르시장 인적사항
  3. 몽골(Mongolia) 개황
  4. 울란바타르(Ulaanbaatar) 개황



**성 명** : 돌고르수렌 소미야바자르 (Dolgorsuren Sumiyabazar)

**생년월일** : 1974년 (만 49세)

**학 력** :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경영, 컴퓨터과학부 졸업

**주요경력**

- '20~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
- '17~'20 몽골 광산중공업부 장관
- '12~'16 몽골 국회의원 (3 재선)
- '08~'12 시의회 대표로 정계 입문

**상 훈**

- '19 울란바타르시 380주년 기념메달
- '14 몽골 붉은깃발 훈장
- '11 인민혁명 90주년 기념메달
- '06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메달

**특이사항**

-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006년 전국대회 우승자로 몽골에서 유명

□ **일반사항**

- 수 도 : 울란바타르(Ulaanbaatar)
- 인구/면적 : 338만 명(2021) / 156.4만km<sup>2</sup>(한반도의 7.1배)
- 언어/종교: 몽골어 / 라마교(54%), 이슬람교(3.1%)
- 기 후 : 대륙성 한랭건조기후

□ **정치현황(2022)**

- 정부형태 : 민주공화제 (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)
- 주요인사
  - 대 통 령 : U.Khurelsukh (후렐수흐, 인민당) ※ 2021.6.9. 당선
  - 총 리 : L.Oyun-Erdene (어용어르덴, 인민당)
  - 외교장관 : B.Battsetseg (바트체첵, 인민당)
- 주요정당 : 인민당(63석), 민주당(12석), 노동민족당(1석)

□ **경제현황(2021)**

- 국내총생산 : 약 137억 불 / 1인당 국내총생산 : 약 4,599불
- 경제성장률: 1.4%, 물가상승률: 13.4%
- 무역규모: 128.7억 불(수출 75.8억 불 / 수입 52.9억 불)
- 주요자원: 구리, 석탄, 형석, 동, 몰리브덴, 텅스텐, 아연, 금, 석유 등  
 ※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

□ **우리나라와의 관계(2021)** ※ 한-몽 수교 : 1990. 3.26.

- 교역현황 : 수출 3.85억 불 / 수입 0.24억 불
- 인적교류 : 방한 5,769명 / 방몽 3,767명
- 교민현황 : 약 2,100명(2020, 외교부) ※ 체한 몽골인 48,185명(2019)

□ 일반현황

- 인구/면적 : 162만 명, 4,704km<sup>2</sup> (서울의 7.7배 분지 형태)
- 위 치 : 유라시아대륙 중심 러시아와 중국 사이(고도 1,350m 고원지대)
- 기 후 : 저온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4계절이分明(연중 평균 -0.4℃)

□ 경제현황 (2022)

- 울란바타르 GDP는 몽골 국내총생산의 약 65%에 해당하는 약 80억 불 생산
- 지난 10년 동안 경제 294% ↑, 인구 41% ↑, 등록 기업 수 183% ↑

□ 행 정

- 시정부와 시의회로 구성
  - 시의회 의원은 45명으로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 (임기 4년),
  - 시장은 시의회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를 총리가 임명 (임기 4년)
- 울란바타르 시장은 몽골 인민당 위원회 의장으로 수도 주지사 직책을 겸임
- 울란바타르시는 9개 구(duureg)와 그 하위 조직인 동(khoroo)으로 구성
- 구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의원 수(21~35명)가 결정되며 구청장과 동장은 각각 울란바타르 시장, 구청장이 임명

□ 도시특징

- 몽골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거주
- 울란바타르 시내의 3개 열병합 화력발전소(시 전체 난방공급), 자동차, 게르가옥(유연탄 사용)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로 대기오염 극심
- 도시 인프라 부족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,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 및 기술 전수 가능



## □ 시장분석

- 인구 3백만의 작은 시장이나 한류 영향으로 중소기업 유망 틈새시장 부상
  - 한류 영향으로 한-몽간 상품·서비스·인적교류 활발,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
-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희망
  -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(최대 수출시장)과 러시아(에너지 공급원) 의존적 국제관계에서 탈피, 소위 ‘제3의 이웃’ (미국, 일본, 한국, 인도 등)과의 교역확대 추진
  - 내륙국가 교통운송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·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

## □ 서울-울란바타르 주요교류

- 1995.10. 서울시-울란바타르시 자매도시 체결(2020년 25주년)
- 2009. 6. 오세훈 서울시장 울란바타르 방문 및 서울숲 조성 MOU체결
- 2015.09.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서울시장 대표단 울란바타르 방문
- 2018.06. 행정1부시장 제3차 동북아 시장포럼 참석
- 2019.04. 서울시(행정2부시장)-울란바타르 철도청(총괄부장)간 도시철도 기술 업무협약 체결
- 2020.11.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온라인 문화행사
- 2020.12. 제4회 동북아 시장 포럼(온라인) 권한대행 축사 및 국제교류담당관 발표
- 2022.12. 제5회 동북아 시장 포럼(온라인) 국제교류 지역담당 읍저버 참석